



◆ 사랑하는 동역사님께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더위도 끝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햇빛은 따갑고 날씨는 덥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시원한 가을과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속히 다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함 없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실하게 맺어 가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교회에 처음 오신 세명의 새신자

◆ 파시피코 교회 사역

파시피코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이들의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지난 7 월 20 일에는 그동안 교인들이 기도하여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선정된 전 도 대상자들을 위해 한달간 기도하며 전도초청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 12 명의 전도 대상자가 오기로 하였지만 행사 당일에는 총 11 명의 전도 대상자가 교 회에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4 영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인 주일에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하였습 니다. 그러나 정작 주일에는 단 한명도 새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역시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주에는 세 명이 새로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전도초청 잔치 식사

◆ 첫 설교

파시피코 교회에서 드디어 현지 언어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 ^^

물론 준비한 설교문을 읽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도 간혹 틀리는 단어들은 교인들이 바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현지어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저의 첫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성도들^^

◆ 이사소식

1 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집은 장로님 한분이 후원 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저와 아내만 남았기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매달 렌트비를 내는게 참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받거나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센터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역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아울러 건강한 파송교회와 연결되어 저희도 파송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예수사랑 사랑사랑 예수사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2)

◆ 선교대회

8 월 5 일부터 8 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KWMC 에서 주최하는 세계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 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500 명 이 넘게 모였고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GP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순종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 한글학교

한글학교 봄 학기가 끝나고 긴 방학이 있었습니다. 7 월과 8 월 방학을 하고 이제 곧 다시 가을 학기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은 한글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내는 왔고 아이들은 흩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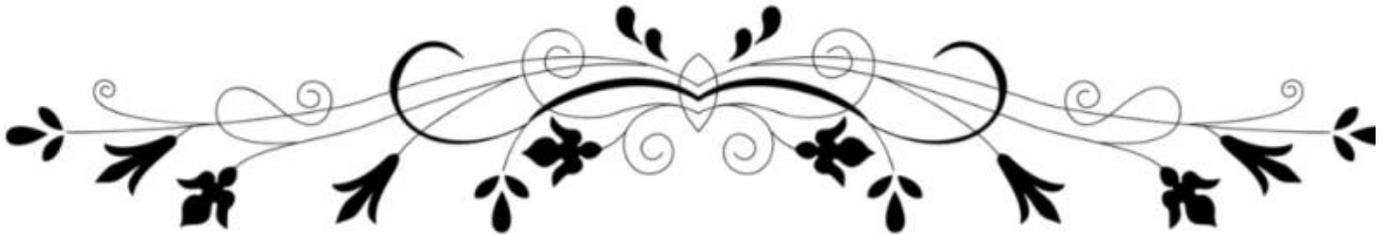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치료하느라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결국 중학교를 중퇴 했던 하민이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곳에서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학교에서 하민이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기도하며 한번 해보자고 무작정 보내라고 하셔서 비자도 잘 받게 되었고 그렇게 지난주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 모금을 한다는 것이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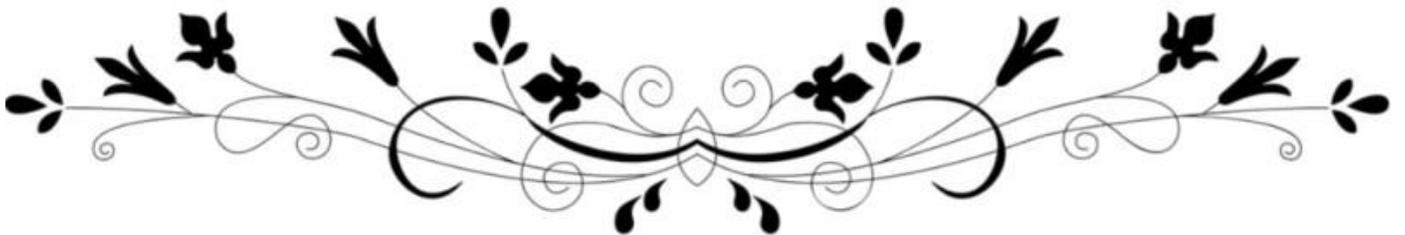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이제 첫째와 셋째는 한국에 있습니다. 셋째는 검정고시를 봤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는 저와 아내만 남아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걷어 붙이고 더욱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필수입니다. ^^ ♥

기도제목



-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끈기와 집중력을 주세요.
- 파시피코교회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한글학교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자녀들의 진로와 하민이의 학교 적응과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미주: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 Global Partners USA T: 714-774-9191

 **venmo** Venmo Account : @Byungho-Lee-2

(GP) 이병호 / 최형진

선교사역에 함께 하기

월1만원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교사역은 누군가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든든한 빌립보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최형진 사역 소식](#)

안녕하세요.
이병호, 최형진 선교사입니다.

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

go.missionfund.org